

다시 살아나는 성고문

- 사설고문실에서 21세의 여성노동자 성고문 당해 -



오열을 터뜨리며 성고문사건의 진상을 폭로하였던 권인숙양의 상처, 모든 여성이 받은 충격이 채 아물기도 전에, 성고문사건이 아직도 재판중에 있는 이 땅에서,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가 당한 끔찍한 성고문 사실이 우리를 분노에 떨게 한다.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여성분과
기독여민회
또하나의문화
명동천주교회청년단체연합회여성부
민족미술협의회여성분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여성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여성부
민중불교운동연합여성부
여성사회연구회
여성의전화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여성분과

제주여민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충남여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여성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여성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여성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38 - 2883 · 737 - 6891)

한달 17일간의 잔업·철야에 성희롱도 비밀비재

원창(주) (부산시 덕포동 소재)에서 지난 4월 22일 21세의 여성노동자가 회사내에 차려진 사설고문실에서 6명의 관리자로부터 성고문을 당하였다.

원창(주)의 8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잔업, 철야, 곱배기철야를 한달에 17일이나 하면서, 모든 제품을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여 해외에서는 18달러 (약 14000원)에 팔리는 신발을 하루에 평균 600켤레씩 만들어 내는데도, 하루 일당은 3400~5600원 정도밖에 안되고 있다. 또한 전기배선시설이 아주 미비하여 손화상을 자주 입고, 선풍기도 한 라인당 2개로 여름철에는 무더위가 극심하며 환풍기시설도 갖추지 않아 작업장에 항상 먼지가 뽀얗게 앉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또 숙박시설도 전혀 없어 철야후 현장바닥에 스킨로품을 깔고 덮고 자기도 한다. 이러한 저임금, 장시간노동속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좀 더 수월하게 다루기 위해, 원창(주)에서는 깡패출신이라는 관리자들이 공장내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욕설, 뺨때리기, 히프 툭툭치기 등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안전요원’이라는 사설폭력배까지 상주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 해 드리고 동생들에게 노트 한권 더 사줄 수 있을까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일해 왔다.

8시간 동안 감금... 성고문까지

에이급 미싱사인 양태임양(21세)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간 출근과 동시에 안전관리실에 감금되어 ‘안전관리요원’이라는 깡패출신의 덩치 큰 남자들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면서 사직서를 강요당해 왔다. ‘가시나 콧죽여볼라’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목을 조르고 얼굴을 짓밟개기도 하고 쓰러뜨리고는 몸위에 올라 타고,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찰는 등 22일간의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양태임양은 부당한 사직강요를 꾀꾀하게 거부하였다. 그러자 회사측은 4월 22

일, 양태임양이 출근하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전관리실로 질질 끌고 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전관리실장 김시찬의 ‘시작해라’는 말과 동시에 장갑을 낀 안전관리요원 3명이 사설고문실로 이용되는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집어 넣으면서 성고문을 시작하였다. 붉은 전등이 장치되어 있고, 쇠의자 1개, 수갑, 쇠파이프가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고문실에 끌려가서는 ‘야, 이 개 같은 년아’ 하는 욕설과 함께 허벅지, 머리, 등 할 것 없이 발로 차이고 짓밟히고, 주먹으로 얻어 맞으면서 사직서를 강요당했다. 그 뒤 실장이 ‘독하게 타라’며 무슨 약물을 갖고 들어와서는 ‘먹어라, 먹으면 입안이 다 타버릴까다’며 강제로 먹이려 했다. 발버둥치는 와중에 약물이 바지에 묻었는데 검은 바지가 흰색으로 변해버렸다. 또 1미터 길이의 쇠파이프를 다리 사이에 넣어 돌리며 위에서 내리밟아 주리를 틀기도 하였다. 허리를 발로 차이고 발가락을 짓밟히기도 하며 정신없이 얻어터지면서도 사직서 쓰기를 거부하자 가슴을 주무르면서 넘어뜨리고는 그 위를 짓밟아댔다. 계속 반항을 하자 ‘독한 년, 말로 안되겠다. 발가벗겨서 해라’면서 옷을 벗기려 달려들었다. 이때 밀치고 땡기는 과정에서 옷은 거의 찢어져 반쯤 벗겨진 상태가 되었다. 도대체 몇시나 되었는지 몇차례나 밟히는 것이 계속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진맥진하고 공포에 질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 그러자 최해진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끝났다’라고 보고하고 돌아서더니 ‘하마 트면 너하고 살을 섞을 뻔하였다’고 능글맞게 웃더니, 이후에도 7시간 동안 최해진이 자가용에 태워 끌고 다니다 집에 내려놓았다.

이 성고문사건이 일어나기 이틀전인 20일에도 양일동씨가 안전관리요원들에 의해 고문을 당하면서 사직서를 쓰기도 했다. 이 외에도 홍대용씨, 김차성태씨는 4월 24일, 고문실에서 폭행을 당해 온몸에 멍이 들었으며, 그 외 10여명이 폭행을 당한 뒤 해고된 일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

양태임양은 “이런 엄청난 사실은 절대로 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800여 원창 노동자들이 언제 또 당할 지 모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성폭행사건에 맞서 끈끌하게 싸워나가고 있다.

성고문 판치는데 새시대가 웬말이나!
악덕기업주와 폭력배들을 즉각 구속하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행사건을 규탄한다

민주화의 시대라고들 하는 이 순간에도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르는 만행은 기업주들의 가장 비열한 행위이다. 특히 악덕기업주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로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노동자가 당한 이 사건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성고문사건 이상으로 심각한 성유린인 것이다. 성폭력을 비롯해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단결권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이 존재하는 한, 온 국민이 그렇게도 소망했던 민주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전 여성의 이름으로 성폭행사건을 규탄한다.

파렴치한 기업주들과 폭행자들이 다시는 이땅에서 고개를 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 나갑시다!!!

우리의 주장

1. 폭력사주 강규원사장, 폭력배 김시찬, 최해진, 박준일, 박경태, 최철한을 즉각 구속하라!
2. 원창사 사장은 폭력사실을 인정하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3.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탄압행위 대처방안을 마련하라!
4.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합시다

1. 이웃에게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립니다.
2. 항의전화를 합시다.
원창사 회사 : 부산시 북구 덕포동 373-2 (부산 325-7161)
강규원 사장 (부산 555-4395)
3. 성폭행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폭력배들을 즉각 구속할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합시다.
노동부 장관 : 503-9700
노동부 부산 북구 사무소 : 부산 335-0304
국무총리 : 732-0066, 734-0020
4. 각 언론사에서 성폭행 사건을 공정하게 즉각 보도할것을 촉구합니다.